

다니엘 42 강

다니엘서 11 장 5 절부터 읽겠습니다. [남쪽 왕은 강할 것이나 그의 통치자들 중 하나는 그보다 더욱 강하게 되어 권세를 가지리니 그의 권세가 큰 권세가 되리라. 그 해들의 끝에 그들이 서로 연합하리니 이는 남쪽왕의 딸이 합의를 이루기 위하여 북쪽 왕에게 올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녀가 세력을 지탱하지 못할 것이며 그도 그의 세력도 서지 못하리니 그녀와 그녀를 데리고 온 자들과 그녀를 낳은 자와 그 당시에 그녀에게 힘을 돌우어 주었던 자가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녀의 뿌리들 가운데 한 가지에서 난 자가 그의 자리에 서리니 그가 한 군대와 함께 와서 북쪽 왕의 성채로 들어가 그들과 싸워 이기리라. 또 그는 그들의 신들을 그들이 고관들과 은과 금으로 만든 값진 기명들과 함께 이집트로 약탈하여 갈 것이요 그가 북쪽 왕보다 몇 해 더 계속되리라. 그러므로 남쪽의 왕이 북쪽 왕의 왕국으로 왔다가 자기 왕국으로돌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부추김을 받아 많은 군대들의 무리를 모을 것이며 한 사람이 반드시 와서 홍수처럼 힘써며 진군하리라. 그후에 그가 돌아와 선동되어 그의 성채에 이르리라. 그러면 남쪽 왕은 화를 내고 나가서 그와 싸우리니 곧 북쪽 왕과 싸울 것이라. 북쪽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가 남쪽 왕의 손에 주어지리라. 남쪽 왕이 그 무리를 사로잡아갈 때에 그의 마음이 높아져서 수만 명을 넘어뜨릴 것이나 그가 그 일로 힘을 얻지는 못할 것이라. 이는 북쪽 왕이 돌아올 것이며 전보다 더 큰 무리를 일으키고 또 큰 군대와 많은 부를 거느리고 몇 년 후에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이라. 그때 많은 사람이 남쪽 왕을 대항하여 일어설 것이며 네 백성의 강도들도 그환상을 세우려고 스스로를 높일 것이나 그들은 넘어지리라. 그러므로 북쪽 왕이 와서 토루를 쌓고 가장 견고한 성읍들을 취하리라. 남쪽의 군대들과 그의 택한 백성도 저항하지 못할 것이며 저항할 어떤 힘도 없을 것이라. 그러나 그를 대적하러 오는 자가 자신의 뜻대로 행할 것이며 아무도 그 사람 앞에 설 사람이 없을 것이라. 그가 영광스러운 땅에 설것이요 그땅은 그의 손에 의하여 진멸되리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당시에는 북쪽 왕 시리아와 남쪽 왕 이집트간의 전쟁과 또 연합과 이 모든 것들이 그 당시에는 예언이었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게 자세하게 다 이루어졌어요. 이 11 장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다니엘 시대로부터 이렇게 이루어질 것,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북쪽 남쪽의 그 왕들의 싸움 속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처해있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다 이루어진 사실이니까 더이상 얘기할게

없다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 나라들이 그 왕들과 왕비들과 딸들과 아들들과 여러가지 정치 속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다 말씀하셨는가? 그거는 이제 12 장에 들어가면 대환란이 나와요. 이게(11 장)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대환란도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걸 말씀하는건데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아 잘못 아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 보면 클레오파트라도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다면 역사는 변하였을 것이다. 하나님이 클레오파트라의 코까지도 다 관장하셔서 가지고 역사를 하나님의 손에 움직이게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12 장에 대환란으로 나오고 끝나는 거예요. 이걸 뭐죠? 요한계시록의 대환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 상징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디서 역사하는가 하면 교계에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1 장의 말씀을 보면서 더는 자세하게 하지는 않겠지만 역사 공부 시간이 아니니까 중요한 것들이 이렇게 자세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면 아 이렇게 앞으로 이루어지겠구나. 북쪽 왕이나 남쪽 왕이나 옛날 바벨론이 북쪽 왕이죠? 북쪽에서 이렇게 기름 가마가 하나 내려와 가지고 이스라엘이 초토화 됐잖아요? 북쪽에서 역사한다. 에스겔에서도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북쪽에서 내려올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통하는 거예요. 또 주욱 가다보면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12 장에 가면 이제 대환란이 나옵니다. 이라고 끝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래서 다니엘에게는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실 하나님께서 미리 다니엘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나중에 오랜 후에 2 천 몇백년 후에 일을 요한을 불러 가지고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마지막 대환란을 더 자세하게 보게 하시게 해서 성경이 끝이 나게 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지막 대환란이 끝이 나면 세상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마지막 한 이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때 69 이레가 끝났고 마지막 한 이레가 아직 연기가 됐죠? 왕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멈췄죠? 그 멈춤 가운데 우리들을 예수의 피로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드신 거예요.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5 절 보니까 **[남쪽 왕은 강할 것이나 그의 통치자들중 하나는 그보다 더욱 강하게 되어 권세를 가지리니 그의 권세가 큰 권세가 되리라.]** 지금 남쪽 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이것은 먼 훗날에 될 일이다. 그리고 남쪽 왕과 북쪽 왕국만이 영광스러운 땅 팔레스타인 땅에 미쳐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초점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 두 나라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나라도 또 두 나라 있지만 이 북쪽왕과 남쪽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대환란 때 이들이 결국 주체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둘 사이에 끼어 가지고 고통 받고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본격적으로 고통 받는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쪽 넘어가서 8 절 넘어가면 그 전에 말씀은 다 이루어졌는데 그것 가지고 더 알 필요는 없고 **[또 그는 그들의 신들을 그들의 고관들과 은과 금으로 만든 값진 기명들과 함께 이집트로 약탈하여 갈 것이요 그가 북쪽 왕보다 몇 해 더 계속되리라.]** 이걸 뭔가하면 그 당시에 이집트의 왕들이 자기 나라를 비우고 시리아에 원정을 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집트 자기 나라에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래 가지고 결국은 그 나라로 다시 돌아갈 수 밖에 없게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푸톨래미 왕 아납니까?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고 시리아의 신들, 즉 우상의 형상들을 다 탈취하고 시리아의 고관들을 다 사로잡아 가고 이렇게 값비싼 기명들과 궁정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약탈해 갔어요 실제로. 그가 시리아에서 탈취해 간 물건 중에는 은이 4 만 달란트 금 기명들이 2 천 5 백점 그리고 귀금속으로 빚어 만든 다량의 우상신 형상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실질적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들입니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푸톨래미 왕이 시리아에서도 찾아간 우상들의 형상들을 원래 자리였던 이집트 신전에 갖다 놓음으로써 이집트에서는 성대한 축제가 열리고 이집트의 제사장들이 공적을 가지고 자기들의 왕에게 은혜자란 칭호를 봉헌했다.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집트에 이렇게 많은 신들이 있는 거예요. 9 절 보니까 **[남쪽 왕이 북쪽 왕의 왕국으로 왔다가 자기 왕국으로 돌아 가리라.]**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반란 때문에 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다시 돌아간다. 이것은 이미 앞에서 말했죠? 그런데 만약에 반란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시리아를 계속 장악해 가지고 이집트가 세계 강국의 위치에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하셨어요. 왜냐하면 북쪽 왕국을 나중에 써야 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역사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될 일을 정해놓고 하신단 말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결국 성경을 읽어도 이게 왜 이런 말씀이 있는지 몰라요. 11 장이 얼마나 자세하게 나왔는지 몰라요. 그 뜻을 깨달아야 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샤워를 하는데 주님께서 탁 마음 속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12 장이 꼭 이루어질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보여 주었다. 깜짝 놀랐어요. 아 맞습니다 주님. 지금 보면 역사지만 그때는 예언이거든. 다 이루어졌단 말예요. 앞으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요한계시록도 이루어질 것이다. 에스겔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깨달으라는 얘기에요. 괜히 하나님이 할 일이 없으셔서 가지고 세상 나라들 이방 나라들 이려고 저려고 하는 것 금신상을 몇 개를 가져가고... 이런 역사를 왜 이렇게 알려 주냐 말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보라 이거죠. 언제 세상이 끝나는가 보라. 세상이 끝나는거는 지구가 끝나는게 아니에요. 10 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부추김을 받아 많은 군대들의 무리를 모을 것이며 한 사람이 반드시 와서 홍수처럼 휩쓸며 진군하리라. 그후에 그가 돌아와 선동되어 그의 성채에 이르리라.]** 지금 시리아가 완전 유린당했잖아요.그러니까 그의 아들들이 화가 나가지고 부추김을 받은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많은 군대를 모아 가지고 이집트에 복수할려고 이제 공격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도 역사적으로 실지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아들 안티오쿠스와 함께 대군을 모았어요. 안티오쿠스란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예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돼지 피를 뿌린 사람이예요. 그때 마카비란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전쟁에서 이겼어요. 마카비 전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날을 지금도 기념하고 있죠. 10 절에 보면 한 사람이 반드시 와서 홍수처럼 휩쓸며 진군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한사람 이게 바로 안티오쿠스입니다. 안티오쿠스가 대군을 이끌고 이집트로 가서 홍수처럼 휩쓸며 진군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집트는 지난번에 시리아를 공격했던 프톨레미 아들 다른 프톨레미가 왕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안티오쿠스는 두로와 프톨레마이스란 곳을 점령하고 홍수처럼 팔레스타인 땅을 거쳐 가지고 팔레스타인 땅을 거쳐 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초토화 되는 거죠. 그래 가지고 이집트의 성채였던 가자 지방까지 내려 갔다고 역사학자는 말하고 있고 이것이 B.c 218 년 입니다. 이와같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들을 때 아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하는것을 알 수가 있죠. 11 절 그러면 남쪽 왕은 화가 나서 그와 싸우려고 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녜요? **[곧 북쪽 왕과 싸울것이라. 북쪽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가 남쪽 왕의 손에 주어지리라.]** 그 당시에 남쪽 왕은 교만해 가지고 이런 시리아를 무시하고 방탕한 생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티오쿠스 군대가 내려오면 당연히 져야 되는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져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남쪽 왕이 이겼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죠. 사람이 보기에는 도저히 안되는 일이죠?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셨단 말예요. 그 사람이 술이 취해 가지고 방탕한 생활을 했어도 그 시리아 대군을 무찔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목적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역사하신다. 결국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복음이 뭘니까? 불경건한 자를 너 의롭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렸으니까 네가 의롭다.

이것을 믿는게 믿음이에요. 내가 좀 착하니까 그러면 그렇지 내가 믿습시다가 아니라 너같이 악한 사람을 내가 피흘려서 이제는 너를 의롭다고 했다. 이것을 믿느냐? 예!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종교인들은 뭐죠? 그게 아네요. 종교인들은 그래도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예요. 0.00 몇 %라도 내 의가 들어가면 그건 믿음이 아네요. 그렇게 볼 때 전심으로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은 피 공로 외에는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판단할 수 없죠? 그런 거예요. 그러나 누가 진리를 배반하고 진리를 잘못 전할 때는 우리가 판단해야 되요.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이란 것은 진리를 기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진리를 기뻐하는 것은 불의를 미워하는 것이죠? 죄를 미워하는 것이죠? 자 12 절 보니까 **[남쪽 왕이 그 무리를 사로잡아 갈때에 그의 마음이 높아져서 수만 명을 넘어뜨릴 것이나 그가 그일로 힘을 얻지는 못할 것이라.]** 이렇게 안티오쿠스 대군과 싸워서 기적적으로 이겼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교만해지겠죠. 프톨래미 필로마네르란 아들인데 우쭐해졌죠? 어떻게 되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 아네요? 시리아 군 수만을 넘어뜨리는데 그치지 않고 시리아를 정복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집트는 그 교만한 아들의 안일한 태도로 인해서 결국 또 한번 기회를 놓치고 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결국은 그렇게 입증된 셈입니다. 아까는 질거를 이겼고 지금은 이길것을 졌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 일로 힘을 얻지는 못할 것이라 예언대로 결국 그는 세력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나라건 하나님이 결국은 안된다 하면 안되는 거예요. 자기 잘난게 없는 거예요. 13 절 보세요. **[이는 북쪽 왕이 돌아올 것이며 전보다 더 큰 무리를 일으키고 또 군대와 많은 부를 거느리고 몇 년 후에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이라.]** 당연한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거죠? 결국 보면 싸움이라는게 미움 증오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지면 미워가지고 또 싸우려고 일어나고 또 이긴데는 안일하다가 망하고. 그렇죠? 이집트의 프톨래미와 시리아의 안티쿠오스 사이에 평화 협정이 체결되고 13 년 동안은 잘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데 북쪽의 안티쿠오스는 그 기간이 지나니까 옛날 생각이 났죠. 화가 났죠. 전보다 더 큰 무리를 일으키고 큰 군대 많은 부를 축적해서 이집트를 공략하려고 힘을 길러냈다. 이 말씀을 이룰려고. 그 사이 이집트에서는 이전의 왕이 죽어버리고 결국 다른 왕이 세워졌는데 아주 어린 아이가 세워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안티오쿠스는 이제 때가 됐다. 13 년이 지나 가지고. 이제는 때가 됐다. 우리가 가면 승리하겠다. 그래 가지고 실지로 승리를 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한거죠. 이렇게 이집트와 시리아 두 왕국 사이에는 전쟁이 끝날 일이 없고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동안에 사태는 새롭게 새롭게 역사가 전개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집트와 시리아라는

두 왕국을 둘러싼 역사적인 사실을 살펴보는 동안에 두 왕국 자체는 그대로 이집트와 시리아는 남쪽 왕과 북쪽 왕이라는 이름에 변함이 없죠? 지금도 그렇죠? 시리아와 이집트는 아직도 있죠? 또 두 왕국의 왕들 푸톨래미니 셀룰코스니 안티오쿠스니 하는 그 이름이 역시 존재하고 있었죠? 이집트의 경우 알렉산더 왕이 죽은 다음에 네 왕이 분열된 후 그리스의 프톨래미 왕조에 장악당하기 전까지는 왕의 전통적인 공식 직위명이 파라오였습니다. 그런데 그 파라오였는데 나중에 그것이 프톨래미란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요셉이 있을 당시에는 파라오예요. 지금도 파라오의 미이라를 파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 후에 프톨래미 왕조로 바뀐 거예요. 약해진 거죠. 자 14 절 보니까 **[그 때 많은 사람이 남쪽 왕을 대항하여 일어설 것이며 네 백성의...]** 네 백성은 이스라엘이죠. **[강도들도 그 환상을 세우려고 스스로를 높일 것이나 그들은 넘어지리라.]** 결국은 남쪽이 자기 아버지가 죽어 가지고 젖도 떼기전에 왕위에 올랐던 남쪽 왕에 대항해 일어났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마케도니아 왕 빌립보스가 있었고 그는 이집트를 분할 지배할 욕심으로 시리아의 안티오쿠스와 손을 잡고 동맹을 했어요. 이집트는 내부적인 혼란과 소요 때문에 그 자체가 들끓는 소처럼 아주 고통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중에는 안티오쿠스의 호감을 사려는 매국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강도들이라 한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이들이 날뛰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의 입지가 더 어렵게 됐고 그 매국노들을 두고 네 백성의 강도들이다. 한국의 이완용같은 사람들.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은 환상을 세우려고 헛된 환상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높이려고 우쭐됐으나 시리아 안티오쿠스는 이들 유대인들의 간교한 속셈을 미리 알고 이놈들 보라 이들은 우리도 배반할 놈들이다. 그리고 이들을 물리쳤어요. **[네 백성의 강도들~그들은 넘어지리라.]** 그대로 된거예요. 자 15 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북쪽 왕이 와서 토루를 쌓고 가장 견고한 성읍들을 취하리라. 남쪽의 군대들과 그의 택한 백성도 저항하지 못할 것이며 저항할 어떤 힘도 없을 것이다.]** 이 당시에 보면 그들이 영광스런 땅으로 이제 그들이 들어가는 것이 나오는데 팔레스타인 땅이 계속 남쪽 왕 이집트의 지배하에 있었고 그당시에도 이집트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시리아 왕은 팔레스타인 땅을 밟고 가면서 이집트를 침략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은 또 이렇게 짓밟히고 말죠. 토루를 쌓고 강력한 공격을 퍼붓는 바람에 이집트 군대는 성읍을 사수하려고 목숨을 다해서 저항했지만 저항하지 못할 것이며 저항할 어떤 힘도 없을 것이다. 이런 예언대로 그들은 결국 시리아의 안티오쿠스에게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됐죠. 16 절 보세요. **[그러나 그를 대적하여 오는 자가 자신의 뜻대로 행할**

것이며 아무도 그 사람 앞에 설 사람이 없을 것이라. 그가 영광스러운 땅에 설 것이요. 그 땅은 그의 손에 의하여 진멸되리라.] 이런 예언을 볼 때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쳐들어 오는 장면을 상상할 수 있죠? 앞으로 30 절에 가면 **[그가 낙심하여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에 대하여 분노를 품을 것이요.]** 34 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술책으로 그들에게 밀착하리라.]** 32 절 **[또 그가 언약을 거슬러 악하게 행하는 그런 자를 술책으로 파멸시킬 것이나...]** 이걸 볼 때 적그리스도가 후 삼년반 때 평화조약을 깨뜨리는 그러한 비슷한 모습을 여기서(16 절)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앞으로 점점 대환란의 모습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냄새를 맡을 수가 있죠. 자 17 절 보세요. **[그는 또한 그의 온 왕국의 힘으로 진입할 태세를 갖추고 사람들로 그와 더불어 관계를 정립시키면 그가 그렇게 하리라. 또 그가 여인들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녀를 부패시키려 할 것이나 그녀는 그의 편에 서지 못하고 그를 위하지도 못하리라.]** 안티오쿠스는 계속 이집트를 공격하려고 그랬죠? 그랬는데 나중에는 방침을 바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외교를 하겠다. 이렇게 했고 그당시 안티오쿠스는 7 살밖에 되지 않았던 자신의 딸 클레오파트라를 이집트의 어린 왕에게 아내를 제공했죠. 그래서 평화 공세를 취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자기 딸을 이집트의 어린 왕에게 주었어요. 여기 보면 클레오파트라를 여인들의 딸이라고 지칭하죠. 실질적으로 클레오파트라가 나타나는 것까지 예언에 들어 있는 거죠. 결국 이집트는 안티오쿠스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클레오파트라와 어린 프톨레미와의 결혼은 5 년 뒤에 성사가 됐다고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녀를 부패시키려 할 것이다. 사실 시리아의 안티오쿠스가 자기 이쁜 딸을 이집트의 어린 왕에게 준 것은 그 딸을 사용해 가지고 이집트를 멸망시키려고 부패시키려 했다. 나쁜 사람이죠. 정략 결혼 시킨 거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 왕의 편에 서지 않고 문제가 일어날 때 전쟁이 일어날 때도 자신의 편에 서서 뭔가 정보를 제공하고 이럴줄 알았죠. 그래가지고 클레오파트라가 남편 이집트 왕을 배신하게 되면 사실 여인이 부패하게 되는거 아니겠어요? 이런 목적으로 안티오쿠스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클레오파트라는 자기 아버지의 기대와는 달리 남편인 프톨레미 편에 서서 이집트를 도왔습니다. 역사적으로 증명됐잖아요. 옛날에 영화도 나왔죠? 뿐만 아니라 로마가 자기 아버지 안티오쿠스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자 그 승리를 경축하는 잔치에 자기 남편과 로마까지 동행하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딸을 좀 사용할려고 했는데 고게 남편한테 빠져 가지고 아버지를 배반했어요. 아버지가 로마와의 전쟁에서 지면 자결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기 남편하고 승리를 자축하는 자리에 동행이나 하고. 자기 딸을 부패시키려

했던 안티오쿠스의 간교한 계략은 수포로 돌아갔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자세하게 기록됐어요. 11 장이 얼마나 길어요. 그게 왜 그렇다고요? 앞으로 일어날 일 한 이레동안 예언된 일이 분명히 일어난다.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알려 주는 거예요. 또한 오늘날 교회 시대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너희도 거둬나지 않으면 여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하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들을 안하니깐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때가 어느 때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만 알면 미래의 역사를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될 일을. 성경은 미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배우지 않고서는 캄캄한 흑암 속에 살기때문에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너희는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 안에 거할때 흰히 보이기 때문에 장래일을 가르쳐 준다는게 뭐예요. 우리가 몇년 사는 동안에 우리 앞에 놓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모든 나라들의 흥망성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앞으로도 11 장 계속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나갈때 야 정말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예언하신 말씀이 자세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모든 말씀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깨닫고 어떤 모든 말씀도 신약에 있는 모든 말씀도 100%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행할때 우리가 사단에게 미혹받지 않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든든히 서서 사단을 대적하며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서 승리하고 또 모든 성도를 위해서 인내로 기도하고 마지막 때 서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모두가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해는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여서 이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서 전신갑주를 입는 해가 될수 있도록 한사람 한사람을 경성시켜 주시고 깨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